

다니엘기도회뉴스



오늘의 강사
문성 선교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 골로새서 1:24 -

- NTM 소속 선교사
- 글자 만들기, 성경 번역, 부족교회 설립 등의 사역
- 현) 파푸아뉴기니 미히 부족 25년간 사역



내일의 강사 김혁건 교수

· 현) 백석예술대학교 강사

다니엘기도회 이벤트



다니엘기도회 인증샷! 포토제닉

다니엘기도회 참석을 알 수 있는 인증샷을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다니엘기도회 간증

다니엘기도회 기간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 원고를 받습니다.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grace@oryun.org

(이름, 소속,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다니엘기도회 에티켓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



① 자리 잡아주지 않기



② 가운데 앞좌석 부터 앉기



③ 음식물 반입 하지 않기



④ 휴대전화 전원은 꺼놓기



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기



⑥ 안내위원에게 협조하기



⑦ 대중교통 이용하기

Daniel
Prayer
Etiquette

2017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주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일시>

11.1(수)~11.21(화)

오후 8:00~10:00

<장소>

영아부

지하 1층 영아부실

유아·유치부

제1교육관 지하 1층 사무엘홀

저학년(1~3학년)

제1교육관 3층 요셉홀

고학년(4~6학년)

제1교육관 4층 다윗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문성 선교사 - 갈라디아서 6:14 -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 하신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사도들은 ‘회개를 통한 겸손’을 말한다.

25년전 한국을 떠났다. 사도 바울과 허드슨 테일러처럼,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하라라 결심하였다. 신용카드마저 버렸다. 주님은 새롭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계획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빈주머니가 되게 하셨다. 어머니, 형님, 장모님, 처남이 돌아가셔도 한국을 올 수 없었다. 신용카드를 버린 것이 후회가 되었다. 차량접촉 사고로 보험 회사에서 청구서가 왔다. 현금하신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현금을 문제해결에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여쭙었다. 현금의 마지막 장을 세다가 깜짝 놀라 바닥에 던져버렸다. 내게 필요한 금액과 같다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언제나 감찰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전능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속마음, 비양심적인 삶. 아버지가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건강하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손이 돌아가고 말하기도 힘들어하고 신발끈을 묶는 것은 물론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도 힘들어 해서 병원에 갔다. 1주일 동안 7명의 의사들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정상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몸을 비틀고 있는데... 몸부림치며 불평도하고 용서를 구하기도하고 애절하며 기도하는 중에 책상위에 펼쳐 놓은 기도제목을 적은 종이를 발견했다. 두려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감정과 지식, 경험 속에 제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몇 일간 회개의 기도만 한 후 우리 부부의 기도가 바뀌었다. “아버지 우리 아이가 회복되지 못한다 해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뜻대로 하소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 왔다. 다음날 아들은 신기하게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검사를 마치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며 놀라워했다. 몇일 후 병원으로부터 청구서가 왔는데 모든 병원비가 완불되었다고 한다. 이슬람교도인 원장을 시작으로 7명의 의사 모두가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것이었다.

부족 형제들에게서, 피부를 파고들어 살아가는 스키퍼라는 벌레가 옮았다. 몇 주 만에 치료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몇일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내게 잘하는 형제를 더 사랑했고,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에게는 두고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때로는 나는 너희들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협박을 했다. 내게 선이 있는 것처럼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기도한 모든 것이 교만이며 인간의 본능이 죄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부족 형제들을 기꺼이 안을 마음이 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움막을 여는데 어느 형제가 내게 안겨왔다. 그렇게 다시 형제들을 안고, 또 벌레가 내 몸을 파고들어 가려워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지만 내게 변화가 일어났다.

회개한 후 그들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고 눈물과 고통이 나의 것이 되었다. 심령에 찾아온 평온함은 감정으로 대하던 형제들을 겸손으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후 부족 여인들은 결코 우리와 나누지 않았던 여인들의 생활을 나누기 시작했다. 부족 남자들이 집안에서 행하는 타락한 생활에 대해 나누어, 그들의 영적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족형제들의 언어와 문화 영적 모든 삶을 알고 난 후 전하는 복음은 힘이 있어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게 되었다.

20여년을 부족 형제들과 함께 살아 오면서 수많은 한계를 만났다. 공포, 부족함, 노력, 열심, 지식의 한계, 그 한계가 복음의 시작인 것을 알게 하셨다. 한계를 만날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 회개는 기도의 응답의 시작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삶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다.

<주일 뉴스 말씀/설교는 설교자가
미리 보내준 요약문을 씁니다.>



김예진

생후 17개월, 어린 나이에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한 김예진(18세). 12살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돼 또 다시 낯선 땅 우크라이나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했습니다. 지금도 시위와 폭탄테러, 외국인에 대한 폭행이 비일비재한 불안정한 이 땅에서도, 예진이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내년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지만 예진이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솔

올해 중국 현지인 학교에 들어간 서광일, 박희성 선교사의 자녀 서솔(9세). 화가가 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꿈인 솔이 역시 등록금이 해결돼 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김희찬

방글라데시에 사는 희찬이(15세)는 내년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

인 민들레학교에 입학할 앞두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해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매달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해야하는데 내년부터 파송교회의 후원금마저 끊길 위기에 놓여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명의 길을 걷는 부모를 따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선교사 자녀들. 미래의 선교인재인 MK들이 하나님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주세요.

사랑의헌금 참여방법

이번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드러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선교사, 농어촌 및 미자립목회자, 외국인 등 수술과 치료, 긴급한 도움으로 160여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사랑의헌금 봉투
매일 예배 시에
헌금합니다

02



ARS 전화 후원
1877-0110
(휴대폰 소액결제)

03



온라인 헌금
585-000711-01-069
(기업은행) 오륜교회

04



스마트폰 헌금
오륜교회 홈페이지(oryun.org)
및 QR코드 참여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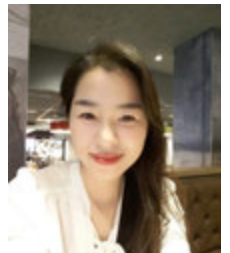
저는 사교육 일번지라고 불리는 학원가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습니다. 제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제 안의 교만과 탐욕은 어느 순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갈망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예배 시간은 줄어들고 세상에서 인정받을수록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던 하나님은 2016년 인간관계와 물질로 제게 고난을 주셨고 저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잃고 물질을 잃었을 때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며 그동안의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저의 우상이 되었던 물질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먼지만도 못한 하찮고 시시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2016 다니엘기도회 마지막 날 강사님으로 오신 하귀선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그동안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다시금 삶의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제자 반을 신청하고 다니엘기도회 지역간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상 때가 덕지덕지 묻은 제가 감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매 순간 걱정이 앞서고 부담이 되었지만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늦은 연락에도 수고가 많다면 격려해주시고 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나눠주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불쑥 자라나 여름 단기선교를 앞두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해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위한 직업이 아니라 제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월급도 없고 사회적인 인정도 없겠지만 제가 남몰래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던 그 꿈. 하나님은 정말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저는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삶을 놓고 다니엘기도회에 전심으로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막하고 불안할 것 같았지만 다니엘기도회가 시작된 11월 1일 저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제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감동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제 글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김솔남 | 청년2부



P 주차 안내

- 주차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셔틀버스는 금요기도회 때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 교회 종직자들은 교회 외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고 운동장 주차차량은 꼭! 당일 출차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1 옥외주차장 2

보성고등학교 주차장 3

